교회소식

- 교우협력부: 다음 주일부터 두 주간(9/29, 10/6) Flu Shot 접종합니다.
- 부서장 모임: 지난 주 제직회 건의에 따라 올해 남은 사역 일정표를 완성하려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올해 남은 사역을 정리해 다음 주일 부서장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당회: 10월1일(화) 오후 2시. 목양실
- 교육부
  - **Apple Picking** (Oct. 6th) @ Wilkens Farm
    1335 White Hill Rd
    Yorktown Heights, NY 10598
  - **Sight & Sound Trip** (Nov. 2nd)
    Children: $50, Adults: $90

섬기는 사람들

9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 구자금 목사 (시 91:1-6; 14-16)
이번 주 친교: 황인선 사모, 변숙영 집사
다음 주 친교: Judith Rizzio, 백혜욱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36호 2019년 9월 22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창세기**	수 8pm / 2층 친교실
	풍성한 생명	목 10am / 2층 친교실
	창세기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1 Corinthians 1:20-31** ---------- Pastor Kim
Sermon ---------- **"Foolish Boast"**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Lord I Need You"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다함께
Hymn Marvelous Grace of Loving Lord

대표기도 ---------- 시 113 ---------- 강승연 집사
Prayer Psalm 113

찬양 ---------- "시편 62편"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45:8-19**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45:8-19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다함께
Hymn Oh, to be like Thee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귀인이냐 하나님이냐? 평안이냐 감사냐? 이사야 44:24-45:7

고레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자기 목자라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항복할 것이며, 고레스는 여호와의 종이요 기름부은 자로 삼아서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듣기는 했습니다. 대하 36:22-23; 스 1:1-2에서 여호와의 명에 따라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조서를 공포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바벨론 왕을 대신해 페르시아 왕을 맞은 이 다니엘을 통해(단 5장) 그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은 증거는 없습니다. 한때 세계사를 호령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고레스를 불러 사용하신 것은 야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45:4). 비록 여호와께 범죄해 그 땅은 황무지가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적국에 끌려간 신세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고레스 같은 인물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귀인을 만나 해방된 것이 대박이 아니라, 고레스 같은 이도 사용하셔서 기어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대박입니다. 크게 쓰임받고 보화와 부귀와 권세를 누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구로만 사용되다가 스러져가는 고레스보다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 받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떡도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면 먹고도 죽는 육체의 떡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주시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생명의 떡이 됩니다.

어떻게 기적 넘어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이 절대자 주권자 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고레스에 관한 예언 앞 뒤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평강과 재앙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내 입맛에 맞는 처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 귀인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을 절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평강만 감사하고 재앙은 거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자에게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그럴 때 주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강만 구하려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두렵고 멀기만 합니다. 피상적으로 좋게 대해드릴 뿐이지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도움이 되는 일로만 만나고, 좋게만 보이고 대하려고 하면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녹치 않아서 조금만 어려워도 관계는 깨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의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절대 경외 절대 감사하는 자가 숨겨진 보화(45:3)를 발견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기적과 평안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Memo